

봉사받기, 봉사하기

Jane De-Rose Bamman, OFS

국가형제회 봉사자

OFS-USA
National Chapter
September 17 – 21, 2024

by Sharon Winzeler, OFS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 현황

제인 드로스-배만, OFS
국가형제회 회장

우리는 서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레이나 마허 (OFS)

국가 양성위원회 위원장

성 프란치스코,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오상

by Vickie Klick, OFS
Chair, NAFRA Centenary Task Force

총회에서의 강론요약

Sharon Winzeler, OFS
소통위원회 위원장

TAU-USA Issue 113 (Fall 2024)
Selected Articles in Korean

봉사받기, 봉사하기

Jane De-Rose Bamman, OFS

국가형제회 봉사자

프란치스칸 가족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만큼, 국가형제회 봉사자로서 봉사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일입니다. 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각 지역 고유의 축복과 어려움을 배우고 매일미사와 아침/저녁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 후에는 모임과 여행 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 따릅니다.

브라이언(공동봉사자인 남편)이 제가 봉사를 위해 여행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집 떠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기술의 축복’ 덕분에 국가형제회 상임위원회(NEC)는 다음 대면 회의까지 결정을 기다릴수 없는 형제회 업무를 의논하기 위해 매달 최소 2 시간 동안 화상으로 만납니다. 주당 40 시간 이상의 생업과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형제회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려 합니다. 놀라울 것도 없이 하느님께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여러 섬기는 봉사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전역에서 단위형제회와 지구형제회 평의원으로 봉사할 형제자매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NEC 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EC 는 지난 3 년간 모든 위치에서 형제회를 이끌어갈 회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45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후보자들은 이러한 리더십이 다른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장과 평의회원은 회원 간에, 여러 형제회 간에, 또 형제회와 프란치스칸 간에 친교의 정신을 실현하고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31.1

후보자들은 봉사의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무도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자신의 장점으로 봉사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장점으로 이끄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의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 전에는 선출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선출될 것이라 생각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다르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여러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선출될 때마다 다음의 사항을 깨달았습니다.

1. 형제자매를 알게되는 것은 나의 성소를 풍부하게 한다.
2. 모두 돕기를 원하기에 책임이 생각보다 가볍다.
3.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평의원들이 채워준다.
4. 삼년 임기는 빨리 지난다.

2025년 9월에 있을 국가형제회 선거총회 준비가 곧 시작됩니다. 장소가 섭외되었고 국제형제회에 통지되었습니다. 봉사할 좋은 후보를 위해 모두가 기도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끝나도 형제회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로 성장하고 오래 번창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봉사자로 선출되지는 않지만 모든 이의 봉사에로의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제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게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지금 봉사토록 불림을 받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단위, 지구, 국가형제회에서 봉사할 좋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추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속 프란체스코회 국가 형제회 평의회가 소노란 사막의 카멜백 산 기슭에 모여 기도하고, 듣고, 배우고, 형제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비공식적으로 “더 카사”로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갱신 센터는 국가 형제회 평의회, 지구 형제회 회장들, 국가회 영적 지도 신부님들, 방문객 등 58 명이 모인 연례 회의 장소였습니다



Desert beauty at The Casa (Vickie Klick)

선인장, 부겐빌레아, 벌새, 푸른 메추라기의 고요함 속에서 재속 프란체스코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재속회의 일에 착수했습니다.

양성 교육은 리더를 위한 감성 지능 기술과 갈등 해결 등 섬기는 리더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일 미사는 피닉스 교구의 주교인 존 돌란을 비롯하여 참석한 CNSA 수사들이 집전했습니다.

매일 모임 전, 800 주년 특별위원회 의장인 비키 클릭(Vickie Klick)은 성 프란치스코가 800 년 전에 받은 오상에 대한 묵상으로 회원들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회원들이 100 주년 웹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회의에서 국가 형제회 평의회 회원들은 다음 각 주제에 대한 국가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 회의/모임의 가상 참여
- 형제회 기록 보관
- 급여 결정
- 프란치스코인 행동 강령
- 갈등 중인 평의회
- 회원의 정직 또는 해임 또는 직위 해제에 관한 모든 지침은 국가 지침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영적 보조자 회의(CNSA)는 각 수도회에서 한 명씩 총 네 명의 수사로 구성됩니다: 제롬 울버트 신부 (Fr. Jerome Wolbert, OFM), 존 델라리바 신부 (Fr. John DeLaRiva , OFM Cap), 마렉 스티보 신부(Fr. Marek Stybor, OFM Conv.), 크리스토퍼 파나고포스 신부 (Fr. Christopher Panagoplos, TOR) 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재속 프란체스코 회 국가 형제회를 돕고 미국 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모든 영적 보조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렉 신부는 국가 평의회에서 CNSA 의 차기 회장이 되었으며 2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Fr. Marek Stybor, OFM Conv., the newly appointed President-in-Turn of the CNSA.

또한 복자 솔나너스 케이시 (Blessed Solanus Casey) 지구형제회 출신의 코린 로렌젯 (Corinne Lorenzet, OFS)이 미리암 케네디(Miriam Kennedy, OFS)의 뒤를 이어 CNSA 의 새로운 행정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Corinne Lorenzet, OFS, newly appointed administrative assistant to the CNSA.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 2025년 9월 13일에 실시될 국가 평의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제인 드 로즈-밤먼(Jane DeRose-Bamman) 국가 형제회 회장은 2024년 11월 1일까지 지명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명단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섬기는 리더십 워크숍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전 교회 위원회 - 회원들은 프란체스코인들의 일치를 위한 공동 위원회와 함께 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5년 3월 21-22일 콜로라도에서 만날 것입니다. 지난 피정의 비디오는 국가 형제회 홈페이지, 전교회/초종교 위원회 웹사이트의 "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 교육 위원회 - 레이나 메이허 위원장(Layna Maher, OFS)은 지원자(구 문의자)를 위한 9개의 장으로 구성된 핸드북, '시작하십시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양성 교육책임 '이를 위해 너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준비 중입니다. 각 장에는 성찰과 실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청소년/청년 위원회 - 캐트린 몰라로 위원장(Kathleen Molaro, OFS)은 형제회가 "우리 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연령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가?", '형제회 생활 중 이 영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각 단위 형제회의 FY/YA 프로그램이 방향을



Kathleen Molaro, OFS, FY/YA Chair

잡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친구를 즐기고, 성소를 발견하고, 평화롭고 프란치스코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 보고서

2025년 일반 기금 예산과 다가오는 2026년 퀸케니얼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31일로 끝나는 8개월 동안의 재무제표도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 기금 예산

2025년 일반 기금 예산이 발표되고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 깊은 대화 끝에 세 가지 작은 추가 사항이 추가되었고 수정된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352,664입니다. 예상 순손실 \$57,164 달러는 필요한 경우 예금에서 충당됩니다. 예산으로 책정된 분담금(Fair share) \$215,000은 2024년 지구 형제회에 보고된 회원 수 회원당 \$22로 계산된 연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의 분담금 인상은 2023년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예산 수입:

- 분담금: \$215,000
- 양성 교육책 판매: \$59,500
- 이자 및 기타 수입: \$21,000
- 총 예산 수입: \$295,500

예산 지출:

- CIOFS 분담금: \$45,000
- 2025 평의회 회의: \$63,210
- 타우-미국 (TAU-USA): \$40,000
- NEC, 3개 위원회, 14개 위원회, CNSA: \$132,454
- 양성 교육책 인쇄: \$52,000
- JPIC 상, 책임 보험, 기타: \$20,000
- 총 예산 지출 \$352,664

예산 순손실:

- 순손실: \$(57,164)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디아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ofsusatreasurer@gmail.com

전국 각지의 프란치스코 인들을 만나고 국가 평의회에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의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많은 혜택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국가 형제회의 리더십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로키의 성모님 (Our Lady of Rockies) 지구 형제회의 부회장인 웨인 암스트롱이 말했습니다.

그는 성기는 리더십과 금주의 영성에 대한 강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참여하고 싶게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Wayne Armstrong, OFS



Charlie Neumann, OFS

“의회는 매우 형제애가 넘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두가 매우 환영해 줍니다.”라고 라 버나(La Verna) 지구 형제회의 카운슬러인 찰리 뉴먼(Charlie Neuman, OFS)이 말했습니다. 그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일, 영성, 친교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생각한 다음, 우리는 프란치스코인적인 행동으로 교차합니다.”라고 찰리가 말했습니다.

“국가 형제회가 무대 뒤에서 하는 모든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성 맥시밀리언 콜비 (St. Maximilian Kolbe) 지구 형제회 사무장인 린다 모니텔로(Linda Monitello, OFS)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의회에 와야 합니다. 여기는 정말 편안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구 형제회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속 프란치스코 국가 형제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할 거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Linda Monitello, OFS



의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영명한 300 여명의 재속 프란치스칸들과 수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였습니다. 평의회 회원인 도나 홀리스(Donna Hollis) 가 이끄는 추모 의식 동안 각 지구 형제회의 회장들에 의해 그분들의 이름이 한사람 한사람 호명되었습니다.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 현황

제인 드로스-배만, OFS
국가형제회 회장

미국 재속프란치스코회 국가 회장인 제인 드로스-배만 (OFS)은 9월 18일 총회에서 연례제회 현황 보고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성소, 소통, 관계라는 세 가지 국가 우선 과제의 현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성소

- 2024년 7월 현재, 활동 중인 서약 회원과 입회자는 총 10,232명입니다.
- 이 중 25개 지역에서는 회원 수가 1.7%에서 23.8% 감소했습니다.
- 반면, 5개 지역에서는 회원 수가 6.5%에서 9.7% 증가했습니다.
- 각 지구에는 입회자, 지원자, 탐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6명에서 98명까지 다양합니다. 이들 지구는 회원 수가 5%에서 24%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13개 형제회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22개의 활동 중인 새로운 공동체나 새로 형성 중인 그룹이 존재합니다.
- 지구별 회원 분포는 100명 미만인 지구가 2곳, 101명에서 300명 사이인 지구가 6곳, 301명에서 500명 사이인 지구가 9곳, 500명 이상인 지구가 13곳입니다.
- 국가 형제회는 7월에 열린 성체 대회에서처럼 가능한 모든 곳에서 성소를 촉진할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한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회원 수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소통

- 다양한 소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소통 위원회는 한 번의 대면 정상 회담 대신 세 차례의 화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OFS-USA를 대표하는 일관된 소통 지침을 논의하고, 소셜 미디어 지침을 수립하며, 번역 절차를 확정하고, 대량 이메일 및 문서 전송에 대한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 국가 집행 위원회(NEC)는 새로운 지구 집행 위원회를 위한 워크숍과 소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관계

- 올해 국가 집행 위원회(NEC)는 여섯 번의 방문과 여덟 번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국내외에서 중요한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총회에 참석하고, 국제 양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미국 대표로서 국제 총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인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타 업데이트

- 새로운 모습: 개정된 예식서가 2024년 8월에 출시되었으며, Gospel to Life 서점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언어 번역: 주요 예식서와 의식서들이 스페인어 및 아마도 한국어로 번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양성 시범 테스트: 국가 양성 위원회는 지원자 양성을 위한 첫 번째 책을 시범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 오 년마다 열리는 2026년 국가 형제회 모임 Quinquennial 행사 준비: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릴 Quinquennia 행사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섬김의 봉사 리더십 워크숍: 2025년 9월 선거 총회를 앞두고 추가 워크숍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선거 준비 마감일:
후보자 추천 위원회구성: 2025년 5월 13일
후보자 명단 제출: 2025년 7월 13일
선거 총회: 2025년 9월 13일

우리는 서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레이나 마허 (OFS)

국가 양성위원회 위원장

봉사는 프란치스칸 리더십 철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하느님과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종으로 보았다.

특별하고 은혜가 가득한 때인 입회식과 서약식에서 우리가 한 의도와 약속을 볼 때 봉사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입회식에서는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재속 신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겠다* 고 약속합니다. 서약식에서 우리는 *나의 세례 서약의 갱신과 그분의 왕국을 위한 봉사에 나 자신의 봉헌을* 봅니다. 이 두 예식에서 언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라는 우리의 소명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회의 창시자인 성 프란치스코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소명을 강조하는 큰 보물인 그의 저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분은 유연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신 후,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FA:ED, vol. 1, 125

회개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후기 훈계와 권고(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두 번째 버전)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 위에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대신에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 피조물에 복종해야 합니다. FA:ED, vol. 1, 48.

성 프란치스코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로 선택한 진정한 봉사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구성원 중 한 명인

나병환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사랑의 봉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단순히 완료할 프로젝트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봉사는 그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성 글라라는 또한 우리에게 봉사적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 글라라의 전설에서 그녀의 거룩한 겸손 [8 장]에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대신 자매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자의 변기를 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귀한 정신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의 약취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리고 경건하게 밖에서 돌아온 봉사하는 자매들의 발을 씻었고, 씻은 후 그들에게 키스했습니다. CA:ED 292

우리는 또한 *재속 프란치스코회 봉사자 리더십을 위한 핸드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모든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자 지침 문서입니다. 모든 등급의 형제회에 속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을 위한 훌륭한 문서입니다. 이 훌륭한 문서는 국가 웹사이트인 www.secularfranciscansusa.org, 에서 온라인으로 자원 (Resources)을 클릭한 다음 재속 프란치스코회 도서 및 용품 (Books and Supplies)을 선택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아이디어, 리더를 위한 가이드, 의사소통, 경청, 대화 참여, 차이점 조정에 대한 실용적인 도움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핸드북에는 또한 협업 문제 해결에 대한 팁과 형제회 회원들이 강점과 성장할 영역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속성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마태복음 20:26-28

성 프란치스코,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오상

by Vickie Klick, OFS
Chair, NAFRA Centenary Task Force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지 8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NAFRA 총회에서 우리는 개의 아침 모임 중 개를 봉사자로서 프란치스코가 겪은 경험과 고통, 그리고 그의 모범이 오늘날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그가 그의 생애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많은 고통의 결과이다. 그 많은 고통은 그와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한 생활에서 왔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회안에서의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것은 프란치스코가 그의 형제동료들과 겪은 문제점들과 아주 흡사하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초기문서에서 따온 글을 묵상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그룹별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했고, 글을 번씩 읽고 듣고, 인상깊은 부분을 나누었다.



오상을 받으신 성 프란치스코

첫날 아침에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수도사들과 함께 총회를 기념한 방법을 읽었다. 프란치스코가 무엇이든지 형제들이 하도록 부탁한 것은, 프란치스코가 직접 행동으로 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부탁했다.



기도하시는 성 프란치스코

둘째날 모임에서는 프란치스코가 한 장상에게 보낸 편지를 다루었다. 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그 장상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하고, 그들이 그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고 하며,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 모두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영적 권고에 따라 어떻게 부응할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일부 형제들의 행동에 실망하여, 형제회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글에 대해 묵상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시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프란치스코의 신자들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글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한다는 프란치스코의 권고를 묵상하였다.



성 프란치스코의 성흔에 관한 독서를 바탕으로 매일 묵상과 나눔을 이끄는 Vickie Klick, OFS

독서 및 토론 질문에 대한 언급은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centenary-resources-the-gift-of-the-stigmata/>

듣기만 하면 잊을 수 있다.

보면 기억할 수 있다.

직접 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총회에서의 강론 요약

Sharon Winzeler, OFS

소통위원회 위원장

2024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천사들의 모후 성당"에서 매일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영하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사는 CNSA(국가형제회 영보단) 소속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집전했으며, 그중에는 마렉 스티보르 신부 (OFM Conv.), 존 텔라리바 신부 (OFM Cap.), 제롬 윌버트 신부 (OFM)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사는 피닉스 교구의 존 돌란 주교가 집전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마렉 스티보르 신부(OFM Conv.), 존 텔라리바 신부(OFM Cap.), 제롬 윌버트 신부(OFM).

마렉 신부의 개회 미사 강론 (성흔 축일):

마렉 신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흔을 "입맞춤"에 비유하며, 고통과 변화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면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았듯이, 우리도 거부감을 감사로, 상처를

치유로 바꿀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다른이들에게 복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마렉신부님의 강론을 들어보세요)

제롬 신부의 목요일 미사 강론:

제롬 신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요한 둔스코투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느님 사랑을 들어내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인간의 죄와 고통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류와 함께 계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데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조차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강론은 사람들이 던지는 비유의 "돌"을 박해받은 성인의 예를 인용하여 설명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강론은 불편한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하느님의 사랑과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단단한 마음을 비유한 “돌들”의 이미지

존 신부의 폐회 미사 강론:

존 신부는 자신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통해 ‘섬김이라는 선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으셨던 두개의 앞치마를 통하여 드러난, 가족에게 끼친 어머니의 봉사하는 삶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으셨던 두 개의 앞치마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타인을 돌보며 헌신한 삶의 상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강론에서 존신부님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하느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에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하느님의 뜻을 믿고 귀 기울이기를 권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겸손을 배우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오는 풍요로움과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초대합니다. 그 앞치마는 그의 어머니의 친절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는 청중에게 “사랑의 실천인 부르심을 나타내는 앞치마를 특별한 방식으로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하며, 서로를 섬기는 데서 나오는 깊은 아름다움을 기억하라고 전했습니다.

둘란 주교의 강론(한국 순교자 축일)

둘란 주교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구절을 통하여 영적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회 건물이 어떻게 공동체의 영적 여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모후 성당의 설계가 자연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신자들의 깊은 영적경험을 돕는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큰 창문들은 자연을 신자들 가까이 끌어다 주며 더 깊은 영적 경험을 돕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당내부의 확대된 세부 이미지



카사에 있는 천사들의 모후 성당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역사상 가장 큰 유리 건축작품



성당후면 상단에 보이는 유리작품

그의 설교는 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개념을 우리의 그리스도교 여정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요 기능은 자신을 죽이고 사랑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적인 활동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가릴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둘란 주교님은 주님을 아는 부르심에 대해 반성하시며, 신자들에게 성체를 받기 위해 준비할 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지 성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는 성가의 가사를 잘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가사는 “주님을 아는 것:나는 그것만 원하네”로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영적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며, 신앙과 헌신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란 주교(가운데)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왼쪽: 존 델라리바 신부(OFM Cap.), 허브 르미르 부제. 오른쪽: 마렉 스티보르 신부(OFM Conv.), 제롬 월버트 신부(OFM).